

##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도 사찰에 올 일이 없고 또 여러분도 절에 다닐 인연이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남이지만 '오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영향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처가 있다는 것, 귀의처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삶은 중심을 잃고 끝없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인연이 다행스럽고 고마울 뿐입니다.

- 법정스님 법문중에서

### 법정스님의 '향기로운 글' 서화전

법정스님의 글에서 발췌한 주옥같은 명구(名句)들로 구성된 다양한 세필의 서예작품과 족자 전시회가 열립니다.

- 일정 : 5월 15일(수) ~ 5월 20일(월)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길상음악회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평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모든 생명에 대한 동체대비의 사상을 기원하는 길상음악회가 열립니다.

- 일정 : 5월 17일(금) / 저녁 7시
- 장소 : 길상사 극락전 드락

주최 :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3. 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2013년 5월 1일(매월1회) 발행 · 통권 219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 길상사 내 ☎ 02)741-4696~7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13 / 5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처음 마음으로 8 수행의 근본 '원력(願力)'

어둠의 시대를 밝힌 사람들 14 무소유의 삶 - 법정(法頂) ③

사색의 뜰 18 산사의 불이 덧없이 간다.

참교육 이야기 20 바람 끝에 내몰린 아이들, 부모의 잘못은 없을까?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4 김광석이 남기고 간 노래, 그리고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국의 탐 28 사사자(四獅子) 석탑

차나음 가득한 시간 31 열반인에서의 훗차 이야기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34 나눔 중독자 퍼순이 퍼돌이 '사랑의 호떡'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40 아름다운 마무리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6



이웃과 나누는 일을 굳이 돈만 가지고  
하는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친절하고 따뜻한 그 마음씨가 소중하다.  
나누는 일을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이 다음은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다.

-법정-

표지사진 · 회원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5월 1일 발행 / 통권 219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글 • 법 정(法 頂)

뒷산에 올라가 해지는 광경을 보고 왔다. 첩첩이 쌓인 아득한 산 너머로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으면,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스레 사람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해가 서녘으로 기울 듯, 우리들도 살만큼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언젠가는 이 지상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낙수, 신흥, 오미실, 한실 등 산촌 마을에서는 저녁연기가 그림처럼 자욱이 서려 있었다. 그 사이로 길이 굽이굽이 하얗게 띄어 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이요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기와 물과 햇볕과 흙의 고마움을 망각하기 쉽듯이. 길의 고마움 또한 까맣게 망각하는 수가 많다.

그 길로 세상의 소식이 들려오고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도 그 길을 따라 세상으로 전해질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에 그만큼 요긴한 길이기에 풍수해의 재난이 닥쳤을 때에도 그 길부터 서둘러 다시 이어놓는다. 인간의 의사를 이어주는 말길도 마찬가지로. 말길이 끊어지면 우리는 인간일 수가 없다. 그 말길을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킨 응어리가 풀릴 수 있고 사람끼리 멧힌 눈 녹듯 삭아질 수 있다.

요즘이 방학 기간이라 불쑥불쑥 찾아드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저녁나절에도 한패가 다녀갔다. 만나는 학생들마다 서울이고 지방을 가릴 것 없이 한결같이 젊음의 패기나 기상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개가 무엇에 쫓기듯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있다. 졸업 정원제가 실시된 이후의 대학에는 젊음도 낭만도 없이 살벌하고 초조한 '낭만만 있다는 말을 산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학점과 졸업과 출세에만 급급한 나머지, 고등교육을 받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보편적인 예절과 교양과 지성은 느끼기가 힘들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학업에조차 흥미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물어보면 '그렇다'거나 '아니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다'고 남의 일처럼 흐릿하게 얼버무리고 만다. '……' '것 같다'는 말은 불확실한 우리 시대 특유의 공통적인 표현법이다.

우리나라의 요즘 대학교육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멀지 않은 날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두 대학생이 이유 없이 교수와 어머니를 각기 살해한 일이 있

었다.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면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어머니와 스승을 살해하기까지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강박감과 불안과 쫓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비정한 입시 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해서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을 길러내야 할 학문의 전당에서는 줄곧 학점과 출세의 뒷에 걸려, 마음의 탄력과 패기와 기상을 마음껏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기가 죽어지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요 나라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젠가 신문에서, 명문 대학일수록 학생들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보도를 읽고, 오늘의 우리 대학교육은 뭔가 잘못됐도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구나 싶었다. 지나간 한때는 '국적 있는 교육'을 가지고 멀쩡한 아이들의 곁을 비

게 하더니, 교육 개혁으로 입시제도가 엄격한 국가 관리로 바뀐 뒤로는 전에 없던 '눈치작전' '배짱지원'까지 등장, 신성한 학부(學府)의 통로를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선량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출 뿐, 장단은 정책당국이 멋대로 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책은 오로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정책 당사자의 입장이나 체면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바에야 그 시정을 위한 즐거운 국민여론에 따를 줄도 알아야 한다. 새 시대를 향한 개혁의지도 좋지만 개혁의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보다 나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겸허한 자세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어떤 틀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력을 지닌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 무표정하고 획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

을 자각케 하고 삶의 전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창조적인 교육은 우리들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에 전존재를 기울여 열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내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

끝없이 향상하고 거듭거듭 형성되어야 할 이 나라의 팔팔한 젊은 생명들을 이미 굳어 버린 기성의 틀을 가지고 그 속에 가두어 시들게 하는 일을 교육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다.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으로 인간다운 일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이 참으로 해야 할 기능은 학생들을 유능한 기술자나 사무원, 관료나 법관이나 의사, 또는 돈 잘 버는 재벌이나 정치인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부패하기 쉬운 우리 사회의 전체 구조를 분명히 알도록 도와서, 건

전한 인간 성장과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탐구하여 새로운 세계와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교육 현실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나치 강제수용소의 감독관이었던 하임 지노트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나는 인간으로서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가스실이 세워졌고 아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과학자들에 의해 중독되어 죽어갔다. 유아들은 훈련된 간호사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여자들과 어린애들은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 의해서

총살되었다.

그래서 나는 교육을 의심하고 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의 학생들을 인간으로 교육시켜 달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노력이 숙달된 괴물이나 숙련된 정신병자, 교육받은 아이히만을 길러내서는 안 된다. 글을 읽고 쓰는 일, 역사나 수학 등은 그것이 우리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만 비로소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들 모두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1983

- 산방한담중에서 -

‘말고항스럽게 · 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4월 19일(금) 진행하였습니다. 본모임의 장학사업은 법정스님께서 불일암 시절 ‘무소유’ 인세로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 하시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불일장학금’의 정신을 이어받아, 1994년 본모임 창립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올해 33명을 포함하여 총483명의 학생(총지급액:약 6억6천만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제외한 총 25명의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께서 참석하였으며, 수여식을 마치고 길상화 보살 공덕비와 법정스님 진영각을 참배하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도 장학생들에게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행의 근본 ‘원력(願力)’

글 ● 德 耘(스님)

사람이 일상생활(日常生活) 속에 빠져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타성에 젖다 보면 일상생활이 게을러지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보며 스스로 깨어 있게 해야 합니다. 묵은 생각과 타성 속에서 거둬거둬 털고 일어나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게 주어진 삶이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불교 역사를 통해 보면 훌륭한 스님들이 수없이 많지만, 오늘은 그 스님들 가운데 당나라 시대의 선지식인 조주 스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조주 스님은 말로써 수많은 사람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그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조주고불(趙州

古佛) 즉 옛 부처라고도 불리어졌으며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말까지 120세를 사신 분입니다. 스님으로서는 아주 장수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주 스님은 어려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비구계를 받기 전의 스님을 절에 서는 사미라고 부릅니다. 사미 때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남전 스님은 그 시대에 명망 있는 선승(禪僧)이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마침 남전 스님은 피곤하셔서 조실(절에서 법이 가장 높은 스님, 총림에 서는 방장) 체에 누워계셨습니다. 한 사미 스님이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을 보자 남전 스님은 대뜸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절집에서 선승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것은 실제로 온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기(禪機)를 시험하는 일종의 선문답입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서상원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서상이란 뜻은 상서로울 서(瑞), 모양상(相)으로써 상서로운 모양을 의미합니다. 남전 스님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서상은 보았느냐?”

서상원에서 왔다고 하니 서상 즉 상서로운 모양을 보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조주 스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서상은 보지 못했지만 누워계신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누워계신 부처님은 남전 스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듣고 남전 스님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이놈,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하고 마음속으로 아주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남전 스님은 또 묻습니다.

“넌 주인이 있는 사미냐? 주인이 없는 사미냐?”

정해진 스승이 있는지, 아직 정해진 스승이 없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대답합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때 조주 스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전 스님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말합니다.

“정월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날씨가 춥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을 이내 자기 스승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을 기특하게 여겨 특별히 보살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주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번쩍이는 선기(禪機) 즉 선의 기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생 동안 수행을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래 조주 스님의 이름은 종심(從淦)입니다. ‘조주’라는 땅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조주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덕산 스님’, ‘백장 스님’ 등은 모두 그

분들이 살았던 지역의 이름인 것입니  
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모시고 살  
던 어느 날,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평상심(平常心)이 도(道)다.”

도(道)란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즉 지금 바로 이 자리  
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속에 있다  
는 뜻입니다.

조주 스님이 묻습니다.

“평상심이 도(道)라면 따로 수행(修  
行)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도(道)를 마음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면 벌써 어긋난다.”

마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니 마음  
이 그대로 도(道)이기 때문에 도를 마음  
밖에서 찾으려면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조주 스님이 또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도(道)를 얻으려고 하면서 수  
행(修行)하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는다  
면 그것이 어떻게 도(道)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도(道)는 알거나 모르는 데 있지 않  
다. 만약 무엇인가를 알아야겠다는 생  
각을 쉬고 참된 도(道)에 도달한다면 그  
것은 마치 텅 빈 허공 같아서 아무런 자  
취도 없거늘 어찌 억지로 시비를 일으  
키겠는가?”

조주 스님은 스승의 이 한 마디에 크  
게 깨우칩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열  
여덟 살이었습니다. 참으로 선기가 뛰  
어난 분이었습니다.

조주 스님은 스승인 남전 스님이 돌  
아가시고 나서 예순이 되어서야 비로  
소 여기저기 운수행각(雲水行脚)을 나  
섭니다. 절에서는 진리를 묻기 위해 이  
곳저곳으로 스승을 찾아 돌아다니는 수  
행자를 일러 운수납자라고 합니다.

운수행각을 나서면서 조주 스님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일곱 살 먹은 동자라도 나보다 나은  
이에게는 기꺼이 배우고, 백 살 먹은 노  
인이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 이에게는

내가 가르침을 베풀리라.’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배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주  
겠다는 원을 세우고 행각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조주 스님은 나이 여든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주 동쪽에 있는 관음원(觀音  
院)이라는 아주 작은 절의 주지를 하게  
됩니다. 이 절은 작고 가난해서 겨우 끼  
니를 이어갈 정도였지만 수행자가 지너  
야 할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  
았습니다. 철저한 수행자로서 무소유(無  
所有)의 삶을 산 것입니다.

조주 스님의 일화에 다음과 같은 이  
야기도 전해옵니다.

어떤 지방 관리가 조주 스님에게 묻  
습니다.

“큰 스님도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  
습니까?”

이는 아주 당돌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주 스님은 태연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지.”

“아니 큰 스님께서 어찌 지옥 같은 데  
를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찌 그대  
를 만날 수 있겠는가?”

이 지방 관리가 아마도 평이 안 좋은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부패한 공무원  
들의 이야기가 방송과 신문 지상에 얼  
마나 많이 오르내립니까? 청렴하고 국  
민을 위해 일해야 할 관리들부터 먼저  
썩어 있으니 개탄할 일입니다. 이런 사  
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  
옥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는 장난삼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  
주 스님의 원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  
다. 들어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의 차이  
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원력(願力)에 의  
해서이고, 떨어지는 것은 업력(業力)에  
의해서입니다.

불보살님은 원력에 의해서 생(生)을

받는 것이고, 중생들은 업력에 의해 생(生)을 받는 것입니다. 원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업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주 스님은 순간적인 기지와 지혜가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떤 유생이 조주 스님이 들고 있는 주장자가 탐이 나서 묻습니다.

“부처는 중생의 원을 들어주신다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미리 함정을 파놓고 조주 스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럼, 중생의 원을 들어주시지.” 하고 스님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유생이

“저는 노스님이 갖고 계시는 주장자를 갖고 싶습니다. 제게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조주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군자는 남이 가진 물건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네.”

그러자 유생이 대답합니다.

“저는 군자가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부처가 아니라네.”

유생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이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지혜롭게 대처한 것입니다.

조주 스님은 그 시대의 덕산 스님이나 임제 스님과 같이 할(喝)과 방(棒)이 아니라 알기 쉬운 말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에 맞는 알맞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이것이 조주 스님만이 가진 가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 스님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지식을 쌓거나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후학으로서 먼저 가신 분들의 지혜를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옛 거울에 오늘의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반성이 없고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없다면,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조사어록을 접하고 법문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에 비춰보아야 하

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의 말씀을 한 것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공허한 남의 이야기일 뿐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조고각하(照顧脚下)’

절집에 가면 댓돌 위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발밑을 살피라는 말인데, 이는 신발을 잘 벗어 놓으라는 말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자기 존재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아침저녁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 원의 힘으로 복과 지혜를 닦는 수행을 철저히 해나가야 합니다. 원이 굳건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원의 힘으로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원

이 없는 삶은 활기가 없으며 항상 흔들립니다.

불보살님과 조사 스님들도 부처나 조사가 되고서 원(願)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의 힘으로 불보살이 되었고 조사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원의 힘만 있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願)이야말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고, 삶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남쪽에는 벌써 벚꽃이 지고 목련과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길상사에도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는 이 찬란한 봄날, 여러분의 삶도 봄의 기운으로 항상 충만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 불기 2557년 3월 초하루 법문  
(2013년 4월 10일)

## 무소유의 삶 - 법정(法頂) ③

글 • 김정남(민주화 운동가)

### 글의 향기

속세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는 문학 청년의 기질이 있었다. 1973년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나온 기념으로 문고본을 산 것도 그러하더니와, 그의 감수성은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글 가운데서 아무것이나 뽑아들어도 그 글은 모두가 아름답다.

“같은 새지만 피꼬리는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고, 두견새는 운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울어도 그저 울지 않고 피를 토하리만큼 애타게 애타게 운다.”

“나도 바람소리에 흔들려 털고 일어나 더 올라갈 데가 없는 데까지 올라왔다. 살아도 살아도 철이 안 드는 풋풋

한 머시매들의 기질, 바람결에 민감한 영원한 나그네들, 해마다 이맘때면 연중행사처럼 나는 혼자서 불쑥 산 위에 올라와 며칠씩 지내다가 내려가곤 한다.…… 수십 리 밖으로 첩첩이 쌓인 아득한 산 너머로 기우는 일몰을 지켜보면서, 우주는 그 자체가 살아 있는 장엄한 빛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아래 저 불빛이 빛나고 있다면 그 지붕 밑에 웃음꽃이 피어 있을 것이고, 희미하게 떨고 있다면 누군가 근심 걱정에 잠겨 있을 것이다.”

그의 문학청년 같은 기질은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한 아이가 벽에 기대어 소리 없

이 울고 있다. 그 아이의 울음을 달래서 이지러진 그 얼굴에 다시 웃음을 피어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을 두고 내 기억 속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기질을 나타내는 글을 두 개만 들어보자.

“가을은 떠돌이의 계절인가, 나뭇잎이 서걱서걱 스치고 지나가는 마른 바람소리를 듣노라면 문득문득 먼 길을 떠나고 싶다. 바람이란 그 바탕이 떠돌이라서 그런지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함께 떠돌고 싶어진다.”

“끝없이 펼쳐진 들녘 너머로 뉘엿뉘엿 잠겨드는 해를 보면서, 사람의 죽음도 저처럼 고요하고 맑은 적멸이라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글, 글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해인사에서였다고 한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화가 전해온다. 법

정이 장경각에 올라가 참배하고 내려오는데 시골 아주머니 한 분이 법정을 붙들고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더라는 것이다. 법정이 “아주머니, 방금 보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으니, 그 아주머니 말이 “아, 그 빨래판같이 생긴 것 말이예요?” 하더라는 것이다. 이때 법정은 절실히 깨달았다. 불교가 옛것만 답습하고 제도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팔만대장경의 말씀도 한낱 빨래판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글쓰기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문학적 감수성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의 언어로 사부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실제로 그는 동국대 역경원에서 불경을 번역하는 일에



2004년 피천득, 최인호와 함께

참여했으며, 불교의 명언집인 『말과 침묵』, 『숫타니파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을 엮고 쓰거나,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불타 석가모니』 같은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1972년에 『영혼의 모음』이라는 첫 수장집을 출간하면서부터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은 나오기만 하면 베스트셀러, 또는 스테디셀러가 되었으며, 『무소유』가 나온 뒤로는 법정의 독자군(讀者群)이 형성되었다. (중략)

### 성철과 법정

법정은 성철 스님과의 인연도 상당히 깊었다. 그는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후반까지 젊은 시절 10여년을 해인사에서 보냈다. 이때 성철 스님을 만났고, 성철 스님의 기상과 철저한 수행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마 성철 스님도 멀리 떠나 있지만 거기서 자신의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법정을 상당한 법기(法器)로 보았던 것 같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고 난 뒤, 그의 저서 『본

지 풍광』과 『신문정로』를 윤문하고 교정해서 출판할 수 있는 원고로 만든 것은 법정이었다. 법정은 살아생전에 수시로 성철 스님을 찾았다.

법정의 책 『물소리 바람소리』에 성철 스님과 문답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며칠 전 해인사 백련암으로 성철 종정스님을 뵈러 갔었다. 올해 73세(글은 1984년에 썼다)인데도 수행자로서의 기상은 전이나 다름없이 팔팔하시다. 스님과 마주하고 있으면 기운이 솟는다. 그때 무슨 이야기 끝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스님이 행각(行脚)하던 젊은 시절, 만공(滿空) 스님에게 스승인 경허(鏡虛) 스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고 물었다. 경허 스님은 1849년에서 1912년까지 생존한 근세 한국 선불교를 크게 중흥시킨 선사로, 그 문하에서 만공, 혜월(慧月), 한암(漢岩) 같은 뛰어난 선승들이 많이 배출됐다.

그때 만공 스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

았다고 한다. 가령 들어서 깊은 산중에 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허기에 지쳐서 쓰러져 마침내 죽게 되었을 때, ‘스님(경허선사를 가리킴)은 더 사시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니 저를 잡아 사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하고 기꺼이 내던지겠다고. 스승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종정스님은 이런 말을 덧붙이셨다. 그 스승은 능히 잡아먹을 사람이고, 그 제자는 능히 잡아먹힐 사람이라고…….”

법정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유가 좀 거칠기는 하지만, 스승과 제자간의 신의가 전 생명력을 기울인 그것이기엔 전해 듣기에도 숙연했다고 한다. 아마도 법정은 이때 자신과 효봉 스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를 돌아보았을 것이다.

월철 스님에 따르면 성철 스님은 법정이 자신의 책을 윤문하고 교정해준 데 대하여 “따로 인사를 해야겠다”고 할

만큼 고마워했다고 한다. 성철 스님이 입적한 몇 년 후, 사진을 모은 책 『포영집』이 간행되었는데, 법정은 서문을 쓰면서 “



1973년 성철스님, 현호스님과 함께 해인사 백련암에서

당신(성철)이 입으려고 챙겨둔 무명옷 한 벌을 주면서 내(법정) 성미에 맞게 행전까지 챙겨주었다. 그 옷을 기워가면서 오랫동안 잘 입었다”고 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았다고나 할까.

성철 스님이 그 청정한 수행과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선사다운 범문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법정은 글을 통해 대중과 소통했다. 두 사람은 선풍(禪風)을 일으키는 방법은 달랐으나 불교를 대중 속에 더욱 가깝게 접근시킨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끝)

\* 출처: 김정남 / 두레출판사 『이 사람을 보라 - 어둠의 시대를 밝힌 사람들』에서

## 산사의 봄이 덧없이 간다

글 • 류광현(작가)

교보문고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시대별로 베스트셀러 집계 범위가 조금씩 달랐지만(이를테면 2000년대 초반에는 50위권까지 집계했지만 중반 들어 100위권, 최근에는 200위권까지 조사하고 있다), 전체 1,350권중 2.8%인 38권이 불교를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38권 중에서 31권이 모두 '시와 에세이' 분야로 분류되었는데 시와 에세이 분야의 전체 숫자가 228권인 것을 감안하면 13%를 차지하는 큰 수치다. 놀라운 사실은 31권중 26권이故 범정스님의 저서였다.

어떻게 범정스님의 저서는 시와 에세이로 분류되었을까. 당연한 사실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당연하지 않다.

故 김수환 추기경의 에세이는 종교 분야를 찾아가야 하지 않는가. 책의 분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접점을 찾는 작업이다. 읽는 소비자가 범정스님의 서적을 에세이 분야에서 찾기 시작하면 출판사도 서점도 그의 저서를 종교 분야에 놓지 않는다. 결국 읽는 소비자에게 불교 서적은 불교가 아닌 셈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불교서적을 삶의 지혜가 담긴 편안한 목소리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2009년 4월 19일 마지막 봄 정기법회에서 범정스님이 말했다. "이 눈부신 봄날, 새로 피어나는 꽃과 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고 견디면서 가꾸어 온 씨앗을 이 봄날에 활짝 펼쳐보기 바

랍니다. 봄날은 갑니다. 덧없이 갑니다. 내가 다하지 못한 말들은 새로 돌아나는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이듬해 유언에서 그는 풀어놓은 말뭉치를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없다며 모든 책을 절판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글은 결코 빛이 아니다. 글의 시작이 빛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하루 해인사에서 범정스님은 한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벽력같은 충격을 받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해인사를 구경 온 아주머니는 팔만대장경의 원판이 빨래판 같다고 일행에게 말했다. 빨래판과 대장경. 알지 못하면 대장경도 빨래판 일뿐이었다. 그때 범정스님은 부처의 뜻을 쉬운 말로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늙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결국 그 늙이 점점 그 쇠를 먹는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내러놓기 위해 부처는 왕의 자리를 마다했다. 진리를 깨달은 부처는 다시 일반 대중에게 돌아와 자신이 본 세상을 함

께 나누려 했다. 개인이 쌓은 덕을 함께 나누는 일, 불교의 회향(廻向)이 그것이다.

무소유. 맑고 향기롭게.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아름다운 마무리. 말과 침묵. 범정스님이 남긴 책의 제목을 눌러 써보았다. 문득 드는 생각 하나. 그가 텅 빈 방에서 홀로 참선을 하며 깨달은 내용을 쉽게 또 쉽게 써놓고 보니, 남은 것이 저 책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뜻에 많은 사람이 감응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서점의 에세이 분야를 찾아 그의 글을 본다.

마음 한 구석에 꼭 눌러놓고 모른 척 하던 것들을 풀어놓기 위해, 알랭 드 보통이 깨운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나 자신의 인간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 벼랑 끝에 내몰린 아이들, 부모의 잘못은 없을까?

글 • 김용택(교육 칼럼니스트)

최근 서울 강북지역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물심부름에 최근 1년간 마실 물 대신 변기 물을 떠다 준 사건이 문화일보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생은 담임교사의 물심부름을 하면서 '변기 물을 떠온 뒤 친구들에게 알리고 물을 마시는 담임교사를 보며 즐거워했다'

며칠 전 「선생님께 1년간 양변기 물 먹인 '얌전한 女학생」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어쩌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든지 군사부일체를 말하자는 게 아니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기쁜 일을 만나면 기뻐해야 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성별 일이 있으면 성내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예뻐하고, 귀한 것을 보면 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같은 다섯 가지 본능적인 욕구와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같은 사람의 일곱 가지 정을 가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다.

화를 내거나 미워할 줄 알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할 줄 알고, 기쁜 일을 만나면 웃을 줄 알지 못한다면 정상이 아니다. 제대로 생각할 줄 알고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바른 삶을 이어

가기 어렵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 제어하면서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감정을 죽이거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일으키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가능할 때, 한 인격체는 비로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다. 성별 일도 아닌데 불같이 성내고 슬픈 일을 만나도 슬퍼할 줄 모르는 아이들도 많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엎드려 지는 아이들이 있다. 끼니도 먹을 시간에 먹어야 하고 배설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아침을 그르고 쉬는 시간에 컵라면으로 시장끼를 때우고 군것질을 입에 달아놓고 있다.

자기 물건도 챙기지 못하고 값진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뭘 먹고는 뒤처리를 할 생각도 없

고 휴지나 껌질은 아무데나 예사로 버린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하기보다 '너보다 내가 더 잘났다. 나는 너보다 비싸고 고급물건을 가지고 있다.'며 자기 스스로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가난한 아이들, 그걸 갖지 못하는 친구들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는다. IMF 이후 줄어 들기는 했지만 메이커 신발이나 분에 넘치는 비싼 옷을 찾고 과시하던 분위기는 아직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책임감이 없는 아이, 인내심도 창의력도 없고,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소위 마마보이의 모습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청소년으로 자란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런 아이들의 병든 모습(?)이 금방 보이는데 부모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안경. 그 안경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양육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배고픔도 겪어보고 슬픈 일, 기쁜 일도 경험해 봐야 한다. 말로 해서

알아들을 일이 있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일이 따로 있다. 배가 고프면 스스로 찾아 먹도록 습관화되지 못한 아이는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고 보지 않은 아이가 남의 배고픔을 이해하기 어렵다. 아쉬움을 모르고 자란 아이, 외로움을 겪어 보지 못한 아이, 슬픈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끼고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부족한 것 없이, 행여나 배가 고프지는 않을까, 아쉬운 게 없이…….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 준다. 나는 배고프고 힘들게 자랐지만 너만은 그렇게 키울 수 없다는 비뚤어진 사랑이 자녀를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실학자 이덕무는 자녀양육의 교훈으로 '낙상매(落傷鷹)'의 예를 이렇게 적고 있다. 매는 해안의 암벽에서 주로 번식

하며, 알을 낳는 시기는 3월 하순에서 5월 무렵이고 한 배의 산란 수는 3, 4개이다. 새끼는 알을 품은 지 28, 29일 만에 깨고 깨자마자 수컷은 자신이 잡아 온 먹이를 직접 암컷과 새끼에게 나누어 준다. 그 뒤에 35~42일이 지나면 암수 함께 먹이를 찾아 나서고 잡아 온 먹이를 공중에서 등지에 직접 떨어뜨려 새끼가 알아서 먹도록 한다.

어미 매는 새끼 매를 먹일 때 높은 하늘에 떠서 먹이를 떨어뜨린다. 그 먹이가 어미를 바라보고 있는 새끼들 바로 위로 떨어진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새끼들은 모험을 해 가며 그 먹이를 차지하려고 위험을 무릅쓴다. 그러다가 절벽의 등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놈도 생긴다. 어미 매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먹이를 취하려다가 실패하여 다리를 다친 낙상매인 것이다.

왜냐하면 새끼 때에 낙상을 한 매가 그 결함이나 열등 보상으로 별나게 사납고 억센 매가 된다는 것을 어미 매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 낙상을 먹이로써 유도한다는 것이

다. 임금님의 매 사냥을 위해 조정에서 응방을 두고 매를 길렀는데 낙상매는 진상품으로서 금테로 발찌를 하여 여느 매들과 구별했다고 한다.

호랑이도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사냥감을 적당히 상처 입혀서 스스로 싸워보게 만들어 새끼가 스스로 먹잇감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은 사랑에 눈이 어두워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고 올곧게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정서는 관념이 아닌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 이러한 정서를 사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놀이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소꿉장난이나 게임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다.

추운 겨울에 얼음을 지치다 물에 빠진 발이 시려도 그걸 참으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친구들과 어울

려 우정을 배우고 양보하는 마음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배도 고프고 발도 시리고 춥지만 어머니께 꾸중을 들을까봐 참으면서 인내심을 배우고 친구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이다. 놀이나 게임은 이렇게 규칙을 지킬 줄 아는 준법정신이며 친구의 도움을 고마워하는 우정과 인내심과 질서의 필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이다.

이웃집 아이는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혹시 경쟁에서 뒤지면 어쩌나 안달하고 불안해 방학도 없이 등 떠밀어 학원으로 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것일까?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인 놀이를 빼앗아 무한 경쟁에 내모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다. 학교성적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 되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오늘날 마마보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낙상매(落傷鷹)에게 자녀 양육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 김광석이 남기고 간 노래, 그리고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전가)

모든 세대에게는 그 세대의 음악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대가 새겨준 취향과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생들과 1970년대 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고 1990년대 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다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주로 들었던 음악의 정서와 BPM(분당 속도, Beats Per Minute)에서 벗어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60년대 생 이상 세대들은 현재 주류가 된 힙합과 일렉트로니카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1940년대 생 세대들은 1970년대 이후의 록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생들이 한국 전쟁 이전에 나온 음악의 느린 박자

와 꺾기의 신과 정서를 질색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세대를 뛰어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음악이거나, 세대를 아울러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음악입니다.

최근 <슈퍼스타 K>,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같은 서바이벌 음악 프로그램에서 리메이크 하는 예전의 노래들은 원곡이 가진 예술성과 현재의 어법이 만나 그 노래를 들어보지 못한 세대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재탄생하곤 했습니다. 물론 원곡만큼의 깊이와 개성을 갖춘 곡으로 리메이크 되지는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렇게라도 현재와 만날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리메이크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형 그대로 여전히 사랑 받는 음악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김광석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김광석이 살아있을 때 그의 음악을 들으며 성장했던 현재의 30대와 40대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10대와 20대까지도 그의 음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김광석 음악이 지금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광석이 구사했던 포크와 포크 록 음악은 1990년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광석의 노래는 통기타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 중에서는 완성도 높은 곡들이 많습니다. 4장의 정규 앨범과 2장의 리메이크 앨범을 남기는 동안 김광석은 슬하에 좋은 곡들을 불러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삶의 낙관과 비관

을 모두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 들어도 좋고 슬플 때 들어도 좋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들어도 좋고, 사랑을 잃었을 때 들어도 좋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좋고, 따라 불러도 좋습니다. 군대에 갈 때, 서른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갈 때를 비롯하여, 삶의 막다른 길마다 공감하고 기댈 수 있는 사연들을 김광석은 노래로 불러주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포크 싱어송라이터가 있지만 김광석만큼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노래한 이는 드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버스커 버스커나 십센치는 밝고 재미있는 노래뿐이고, 김광석 이후 한국 포크 음악의 예술성을 지켜가고 있는 장필순이나 시와 같은 뮤지션의 음악은 감상용 음악으로 손색이 없지만 함께 부를 수 있는 음악은 아닙니다. 김광석 사후 김광석만큼 폭 넓고 뛰어난 포크 음반을 내놓은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쉽게도 김광석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김광석을 추모하는 공연이 해마다 이어지고, 리메이크 앨범과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서울 대학로에서는 김광석의 노래로 만든 뮤지컬이 두 편이나 상연되고 있습니다. 〈그날들〉과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영화 감독인 장진 감독은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라는 작품을 올해 12월에 공연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5월 19일까지 공연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김광석의 음악을 원형에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극에서 사용되는 22곡의 노래들은 한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광석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쥬크박스 뮤지컬답게 김광석의 노래로 만들어진 뮤지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김광석의 노래는 특별한 편곡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인공을 맡은 풍세영의 박창근과 최승열은 김광석이 그러했듯 통기타 한 대로 많은 노래들을 소화합니다. 밴드가 함께 하는 곡도 있지만 밴드 편성 역시 어쿠스틱 밴드 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

던 김광석 노래의 스타일이 갑자기 바뀌어서 낯선 느낌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김광석이 불렀던 스타일에 가깝게 부르면서 극중 인물마다 약간의 변화를 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역시 자연스러운 발성과 연주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 김광석 음악 본연의 호흡을 그대로 따라잡니다.

특히 주인공인 싱어송라이터 박창근은 오랜 음악 활동으로 다져진 맑고 높은 목소리로 김광석 노래의 진가를 순도 높게 재현해냅니다. 그가 능숙하게 기타를 치며 고음을 뺏어나갈 때 우리는 김광석 노래 속에 담긴 깊은 매력을 절절하게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끌어내는 박창근의 능력에 반하게 됩니다. 김광석은 떠났지만 새로운 김광석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극중 중화 역을 맡은 홍종화의 기타 애드립 실력도 좋고, 극중 다른 배역들이 한 두곡씩 부르는 김광석의 노래도 모두 각각의 진솔한 매력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김광석의 노래를 재현하고 그 가치와 진정성을 온전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음악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드라마를 구축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17년 전 대학 시절 김광석의 노래를 좋아했던 그룹사운드 블루드래곤즈의 멤버들이 다시 콘서트를 연다는 시놉시스를 가진 이 작품은 그들의 대학시절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면서 사이사이 김광석의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구성됩니다. 김광석의 노래는 극중 인물들이 겪는 사건이나 심경을 대변하는 장치로 쓰이는데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작품에서 추가되는 것이 극의 흐름이 아니라 극에서 들려주는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덕분에 뮤지컬다운 새로움을 맛보기 위해서 작품을 보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지만 김광석의 노래를 좋아했던 분들이 김광석 음악의 진면목을 만끽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거리에서’, ‘나의 노래’, ‘그날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등병의 편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서른 즈음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비롯한 김광석의 노래들을 계속 듣고 있노라면 김광석의 노래가 사무칩니다. 그의 노래가 삶의 순간순간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노래가 얼마나 진실하고 아프고 아름다운지 새록새록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를 남겨두고 지금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가도 노래는 남지만 아무리 노래를 듣고 박수를 쳐도 그림과 그리운 마음 가시질 않네요.

## 사사자(四獅子) 석탑

글 •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운영위원)

사사자(四獅子) 석탑은 석탑의 나라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조차 레가 드문 이형탑의 한 형식이다.

현재까지 세상에 알려져 창작성, 예술성, 종교적 특수성 및 역사성이 인정되어 문화재 대우를 받는 사사자 석탑은 국보 제35호로 지정된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을 비롯하여 화엄사 원통전 사사자탑(보물 제300호), 사

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보물 제94호), 홍천 괘석 사사자 삼층석탑(고려시대, 보물 제540호),



홍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고려시대, 보물 제540호)

리 사사자 삼층석탑(보물 제540호), 함안주리사지사사자석탑(경남 유형문화재 제8호), 금강산 금장암지 사사자 삼층석탑(북한 국보 문화유물 제100호), 선암사 화산대사 사리탑(미지정문화재) 등 총 7기의 사사자 석탑이 있다. 한반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례를 볼 수 없는 탑이기 때문에 종교적, 문화적으로 그 가치와 중요도가 높은 탑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사자 석탑은 한국 불교사에 중요한 이형탑의 한 형식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하였는데 이러한 사사자 석탑의 회소가치가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불교 문화재에 환장하는 일본

인들로 인해 모사품을 만듦으로써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저기 전국의 사찰에서 제보되는 사사자 석탑들은 대부분 창작성도 없고, 예술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으며, 조성의 연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기단석이나 탑신에 새겨진 부조 또한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많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라는 책을 집필한 문화재 연구가 '이순우'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사사자 석탑들을 삼국시대의 것 또는 고려시대의 것 혹은 보물급 문화재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최근에 나타나는 사사자 석탑들이 언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고려 현종, 보물 제94호, 문화재청)



선암사 화산대사 사리탑  
(조선후기 또는 근세, 미지정 문화재)

제 유행했고,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정리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사사자 석탑들은 그 유형이 크게 다른 것에 반하여 최근에 나타나는 사사자 석탑들은 비슷한 유행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탑신을 받치고 있는 사사자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네 마리 사자의 크게 벌린 입부터 굳게 다문 입모양까지 네 단계의 입모양 가진 사사자를 통하여 범성 진리를 터득하는 단계, 미묘한 꿈의 의식상태, 미분화된 의식의 자연적 상태, 그리고 범성과 일체된 자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사사자 석탑이다. 즉, 일체중생이 자중自證과 타화他化를 본래 갖추고 있다는 의미를 사사자의 입모양에 담



분황사 모전석탑

고 있는 것이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 탑의 기단부 네 귀퉁이에 바다 쪽은 암사자, 내륙 쪽은 수사자를 세웠는데 이 탑의 네 마리사자도 자증自證과 타화他化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 네 마리 사자의 입 모양으로 표현되는 자증自證과 타화他化는 입을 크게 벌린 사자와 입을 다문 사자 두 마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탑 보다는 석등에 주로 조각되어 있다. 대표적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통일신라, 국보 제5호)

인 쌍사자 석등으로는 충북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앞에서 두 마리의 사자가 뒷다리를 힘차게 뻗치면서 가슴을 맞대고 석등을 받치고 있다.

사자사 석탑은 이러한 자증自證과 타화他化의 의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조차 드러내지 못하여 기본적인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탑을 사자사 석탑이라 할 수 있을까? 종교적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재나 예술 작품들을 흥내 낸 모작은 창의성이나 예술성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는다. 불교의 탑은 창작성, 예술성, 역사성과 함께 종교적인 부분까지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문화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는 사자사 석탑들에 대한 예술적, 역사적, 종교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얼바인에서의 홍차 이야기

글 • 문정숙

### - 외손녀와의 상봉

지난겨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얼바인시로 떠난 딸이 카카오톡으로 보내 온 그곳의 사진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고 싶다는 외손녀의 간절한 메시지에 이끌리어 미국행을 결심한 우리 부부는 태평양을 건너 LA공항에 도착했다. 반갑게 마중 나온 딸 내외와 함께 승용차로 50여분을 달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외손녀가 수업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였다.

부드러운 눈빛의 담임선생님께 한국 녹차와 연꽃 문양이 새겨진 백자 다완을 선물하자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하신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만들었다는 부활절 행사 케이크를 맛 본 후 아이

의 손을 잡고 교실을 나서니 운동장가의 하늘이 눈부시게 파랗다.

아이의 불을 '톡톡' 두드리며 "사·랑·해"라고 말하면 아이는 "나·도" 하면서 나의 불을 '톡톡' 친다. 이어서 아이가 "I love you" 하면서 손뼉을 세 번 친다. 나도 질세라 "Me, too" 하면서 손뼉을 두 번 치면 아이는 까르르 웃는다.

아이랑 사랑놀이를 하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다.

짐을 대강 풀고, 강충대며 우리를 안 내하는 아이의 뒤를 따라 초록 잔디와 화초가 잘 가꾸어진 아담하고 조용한 주택단지 한 바퀴 돌아본다. 3월 하순의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 수영장에서 몇몇의 젊은이들이 스

과와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신선해 보인다. 수영장 곁에는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파라솔이 있는 테이블과 가스 오븐식 바비큐 시설이 갖춰져 있다.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오늘 저녁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저녁거리를 위한 쇼핑에 나섰다.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들어서니 광활한 캘리포니아의 농원에서 생산된 각종 과일과 야채, 신선한 육류와 잘 손질된 어류, 유제품과 빵류 등 갖가지의 먹을거리들이 전반적으로 품질 대비·초저가로 다량 판매되고 있다.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서울 살림에 비해 '앵겔계수'가 엄청 낮아지겠다는 농담이 절로 나온다. 돌아오는 길에 한인 마트에도 들러보니 한국인 식단의 모든 식재료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기다.

### - 홍차를 마시며

젊은이들이 모두 돌아간 수영장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된 듯하다.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찬물 속에서 참방거리던 아이가 해가 지자 닭살이 잔뜩 돋은 채 차갑게 젖은 몸으로 내게 달려와 와락 안긴다. 젖은 머리를 닦아주고 커다란 타월로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따끈한 홍차를 커다란 머그잔에 담아 너 한번, 나 한번 나눠 마시며 홍차의 고운 빛깔을 무심히 바라보니 문득, 기호음료에 불과한 홍차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이야기가 생 각난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커피 소비국이지만 영국 식민지 당시의 미국인 들은 주로 홍차를 즐겼기 때문에 영국 으로부터 많은 양의 홍차를 수입해야 만했다.

그런데 7년전쟁(1756-1763)이후 식민지 경쟁에서 승리하여 세계 제국으로 성장한 영국은 식민지인 미국에 대해 과도한 조세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특히 동인도회사가 차의 판매 및 생산의 권리를 독점하는 차조령(茶條令)이 발표되자 미국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였

다. 마침내 1773년 12월 16일, 보스톤의 반영국 급진과 50여명은 토착민인 모 호크족으로 분장하고 보스톤 항에 정박해있던 동인도회사의 선박 2척을 습격하여 배에 실려 있던 총342개의 홍차 상자를 모두 바다에 던져 버렸다.

그 일대의 바닷물이 홍차의 빛깔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스톤 티 파티(Boston Tea Party)'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은 피식민지의 저항을 한층 자극하여 미국독립전쟁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에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아메리카 식민지를 지지하였고 특히 해군과 육군을 파병하여 직접 군사지원을 했던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진다.

### - 얼바인의 복두칠성

수영장 건너편에서 저녁 준비가 한창인 딸 내외의 모습이 분주하다.

달콤한 과일과 싱싱한 야채, 갓 구워낸 새우와 연한 쇠고기에 캘리포니아산 적포도주로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 가족 모두 이 순간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슴 깊이 새겨 넣는다. 저녁 실바람에 가느다랗게 흔들리던 촛불이 모두 녹아버리도록 가족 간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아이는 품안에서 새록새록 잠이 들어 주변은 더욱 고요해지고 아름다운 일곱 개의 별, 복두칠성이 꿈결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가만히 조선의 여인 유한당 홍씨(洪原周, 1971-1842)의 다시(茶詩)를 읊어 본다.

又答	또 답함
初開寶硯夜催詩	처음 베틀을 여니 밤은 시를 재촉하네
星斗橫天月出遲	복두칠성은 하늘에 걸리고 달은 더디 나온다
掛燈閑坐高臺上	높은 누대위에 등을 달고 한가롭게 앉아
看雪烹茶樂自知	눈을 보며 차를 달이니 얼마나 즐거운고

## 나눔 증독자 퍼순이 퍼돌이 '사랑의 호떡'

글 • 변택주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빼곡한 오월은 식구들이 정을 가르고 스승이나 둘레 어르신에게 고마움을 드리는 가정의 달에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복지관으로 요양원으로 교도소로 재활병원으로 군부대로 발에 땀이 나도록 땀 뚫어다니며 더 바빠지는 부부가 있다. 호떡을 구워 나누는 김용자(63) 김영옥(65)부부. 결혼한 이 부부가 보인 선행은 호떡 나누기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2011년 4월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에서 주는 '제11회 우정선행상' 대상을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놀라운 일은 김용자 김영옥 부부가 상금으로 받은 3000만원을 모두 어려운 이웃들에게 되돌렸다는데 있다. 두 사람 터전이

있는 강릉시에 500만원을 맡겨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데 써 달라고 했고, 나머지 2500만원도 평소 즐겨 찾던 춘천 애민보육원, 강릉 자비원, 강릉 보육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두루 나눴다.

### 부모 등골 빼먹지 않으려 중학교 중퇴한 소년

두메산골에서 태어난 김영옥은 공부 잘 장학금을 받을 만큼 잘했다. 그래 봐야 간신히 고등학교나 나올 텐데 부모 등골 빼먹고 공부는 해서 뭐하나 싶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다. “그렇지만 어린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엄마, 아버지 숙만 썩었지요.” 김영옥은 어려서 커서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너른 골짜

기를 사서 토끼나 염소를 키우고 호박 옥수수를 가꾸면서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려더우려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저 꿈이었을 뿐 농사를 짓다가 스물셋 넘어 결혼을 했다. “마누라 등쌀에 이기지 못해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그러나 서울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뭘 하겠어요? 리어카 끌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팔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호떡은 한 곳에 머물러 구워 팔면 되니까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덤벼들었어요. 한 개에 50원씩 할 때였는데 호떡을 2년 동안 구워 집을 한 채 마련했어요. 그런데 집 사 람하고 뜻이 맞지 않아 티격태격하다가 이혼을 했거든요. 위자료로 산 집을 내어주는 바람에 나는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 수완이 남다른 사업가 김영옥

이혼을 하고 나서 대구에 내려와서 막노동을 했다. 막노동을 하다보니까 면장갑이 꼭 필요했다. 시골 살 때는 구경도 못했던 면장갑을 쓰면서 이

결 팔면 되겠다 싶어서 막노동을 그만 두고 장갑을 팔러 다녔다. “벌이가 괜찮아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들이야를 엄마, 아버지가 키우고 계셨는데 그래도 제 어머니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85년엔가 재결합을 했어요. 사업은 처음에 100만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사무실에서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양옥집을 사고 3년 뒤에 프레스토 승용차로 배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방, 오토바이 수리점, 카센터에 다니며 팔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공장 납품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납품을 시작했다. 김영옥 사장 주머니에는 늘 껌이나 사탕이 떨어지지 않았다. 납품을 받는 경리나 총무와 아가씨들에게 나눠줄 가벼운 선물이었다. 그리고 주문을 받으면 한 번에 100개짜리 다발 서너 개에서 다섯 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봉치에서라도 숫자가 비면 그날 납품한 물건 값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장갑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장갑이 필요하면 아무 다발에서나 쓱 빼

서 썼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라지 남진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날 들어간 물건 값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니다.”

### 사랑의 호떡집

공장에 필요한 소모품이란 소모품을 다 이문 한 푼 남기지 않고 사다 줬다. 오리고 십리 간다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었다. 그러니 담당직원이 다른 데로 가면 불려주고, 같은 업종 친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 괜찮다”는 입소문이 퍼뜨렸다. 거래처가 장사를 시작하고 여섯 달 만에 500군데가 넘게 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조공장에선 하청을 받아 직물을 짜주고 남는 실이 많다는 사실을 안 김영옥 사장은 창고에 쌓인 실을 헐값에 사다가 몇 곱을 더 붙여 팔았다. 팔지 못하고 남은 실은 장갑이나 양말을 짜서 팔았다. 95년도에는 장갑 짜는 기계를 31대를 돌릴 만큼 회사가 커졌다. 회사는 불붙듯이 일어났지만 가정은 지옥이었다. 성격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날이면 날마다 싸웠다. “다시 합쳐서 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도로 헤어졌습니다. 사업도 때려치우고 있는 계산 다 털어주고 빈손으로 집을 나와 세 해 동안 노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강릉으로 가서 영동고속도로로 가는데 쫓아다니면서 밤일도 마다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한 해 동안 여관 잠을 자면서 1200만 원을 벌었지요. 강릉에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돈으로 가게를 열고 호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호떡이나 나누며 살자고.”

### 호떡 가게를 열고

강릉시 옥천동 오거리에서 호떡 가게 문은 연 때가 2000년. 값은 천원에 네 개였지만 학생들이 오면 여섯 개를 줬다. 김영옥 사장은 남루한 차림을 한 허기진 사람을 만나면 10여 년 전 노숙했던 처지를 떠올리며 호떡을 그냥 주고, 날마다 500개가 넘는 호떡을 복지관이나 보육원 같은 곳에 싸서 보냈다. 나누다 보니까 2005년에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상을 준다고 했다.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사래 쳤지만,



사랑의 호떡집

가게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끌려가서 받았다. 그 뒤로 이왕 나누려면 따뜻한 호떡을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들어 부인과 의논해 차를 한 대 사고, 설당을 세 해는 너끈히 쓸 만큼 15킬로그램짜리 한 800포대를 들여놓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호떡나누기를 시작했다.

“복지시설을 하루에 네 군데 다섯 군데씩 싸돌아 다녔어요. 집에 돌아와 장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군부대, 교도소, 장애인복지시설, 양로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미친 듯이 다니다보니 아침에 나가서 해진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 장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닷새는

돌아다니고 이틀만 장사를 했지요. 원래 남은 돈으로 나눌 생각이었는데 셈이 턱없이 맞지 않았어요.”

문제는 강릉이 좁아 시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있었다. 강릉을 벗어나 춘천이나 인제 같은 곳으로 멀리 다니다보니 돌아와 장사할 시간이 없을뿐더러 한뼉잠을 자게 되니 기름 값, 여관비로 길에 뿌리는 시간과 돈이 만만치 않았다. “인제를 다녀오려면 여섯 시간 가까이 걸려요. 호떡 구워주고 어찌고 하면 하루가 후딱 가니까 자고 와야 하죠. 원주, 상주, 양양, 동해, 월정사노인요양원, 주문진 샵터, 주문진 아동센터, 강릉교도소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강원도뿐 아니라 경북 상주, 충북 예천 같은 타도로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인천 같으면 그 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땅을 만큼 시설이 많으니까 여러모로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이리온지 한 3년쯤 되었는데 경비는 한결 덜 들어요.”

## 교도소에서 온 편지

호떡을 먹은 이들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적바림한 편지글이 빼곡한 나눔 발자취가 담긴 책이 모두 열한 권. 그 안에 저마다 곁고이 들어앉은 사연들. “교도소에 들어와 처음으로 호떡을 먹었다.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 내 평생 이런 맛 호떡을 또 먹을 수 있을까?” 449 염선용 봉제I (춘천교도소)

“…날씨도 추운데 저희 수용자를 위해서 많은 호떡을 만들어 주셔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이 만드시느라 힘이 드셨을 할머니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훈훈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나가면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 최보현 올림 (강릉교도소)

지난 3월 2일 인천 부개역 가까이 일신종합시장 안에 있는 사랑의 호떡집을 찾았을 때 부부가 추운 겨울을 피해 강릉에서 다섯 달 동안 겨울을 지내고 올라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여긴 추우니까 강릉에 다섯 달 동안 지내다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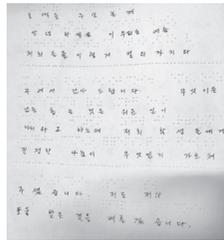
어요.” 가게 이자 살림터에는 난로도 때지 않아 몹시 추웠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만, 시간이 없으면 불쌍하고, 여유가 없으면 불행하다.”

“불행은 욕망에서 옵고, 사랑은 믿음에서 싹트며, 행복은 나눔에서 빛난다.” 고마운 마음을 담은 이들이 보낸 편지를 묶은 책 표지에 적바림된 이 글이 부부를 이끌어온 고객이다.

## 대책 없는 퍼주기

이 사람이 저를 퍼순이라고 불려요. 뒷일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설마 굶어 죽어야 하려고요. 생각 없이 살면 아주 편해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힘닿는 데까지 하다가 정리를 하고 뭣 좋은데 가서 한 이태 겨울만 장사 하면 죽을 때까지 두 식구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까지도 모자라면 천, 천오백만원씩 씩



시각 장애인인 보낸 점자 편지

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썼어요. 종신보험 들은 지 한 15년 되니까 앞으로 돈을 더 빼 쓸 수도 있어요.” 남 얘기 하듯 담담히 털어놓는 김용자씨.

김영욱 사장은 언제나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호떡을 굽는다. 일을 맞는 예절이다. 참, 이 부부는 언제 쉰까? “쉬는 날 없어요. 겨우내 강릉서 지내다가 엇그제 이리 옮겨와서 정리하느라 며칠 쉬는 거지. 저기 칠판을 보세요.” 뻑뻑이 일정이 들어 찬 칠판을 가리킨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언제 와서 호떡을 구워 줄 거냐는 전화가 서너통 왔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쉬면서 나들이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겨야 하지 않을까? “우린 문화생활을 하지 않아요. 시청료가 아까워 텔레비를 없었으니 드라마도 안 보고, 목욕탕, 미장원, 이발소도 가지 않아요. 이 사람 머리는 내가 가위로 잘라 주고 내 머린 길면 끝을 다듬고” 김용자씨 말이다. 돈은 한 달에 얼마나 쓸까?

“전화 요금이나 수도세를 조금 내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아요. 호떡을 나누

러 가면 커피나 드링크제도 주지만 반찬이나 쌀도 곧잘 퍼줘요. 그리고 복지관이건 군부대건 교도소건 가면 밥을 주니까 저녁만 한 끼만 해결하면 되지요. 신발, 속옷이나 사 입을까? 겂옷은 다 오래 전에 입던 옷이에요.” 얘기로 보아 부부에게 들어가는 돈은 한 달에 10만원 남짓할 듯하다.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될까? “수입? 우리는 수입 없어요. 저녁에 돌아와 여는 날보다 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으니까. 어쩌다 열어봤자. 지나가던 사람이나 살까? 아무도 오지 않아요. 늘 단혀 있으니까. 2천원 판 날도 있고 3천원 판 날도 있고.”

설탕이나 밀가루를 생산하는 회사나 뜻 맞는 비영리단체에서 더불어 준다면 대책 없는 나눔 중독자, 퍼순이 퍼돌이 부부가 온 나라를 농장 삼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어릴 적 꿈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억지로 뺏다시피 해서 본 통장은 부인 김용자 명의 농협은행 302-0594-1964-71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법정 어른 스님 말씀 ‘선택한 가난’을 떠올린다.

## 아름다운 마무리

### 5월의 결연 대상자 - 김수임 어르신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인 독거노인은 한 달에 38~39만원의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받고 몸이 아프면 의료보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지만 호적상 자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현실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5월의 결연대상자인 김수임(78세) 어르신은 폐지를 수집하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입니다. 주거지 주변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일과 기초노령연금 말고는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어서 매월 약 11,000원을 납입하고 있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17,000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됩니다. 겨울이면 난방으로 가스비 6~7만원이 더 발생합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지, 한 달 10만원 안팎의 수입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기가 버겁기만 합니다.

요즘 폐지가격은 1kg에 70원. 어르신은 매일 파지를 모아 일주일에 서너 번 팔러 다녀오시는데, 어느 날은 1,500원(약 20kg), 어느 날은 2,000원(약 30kg),

손수레에 다 싣지 못할 정도로 가득 채워서 고물상을 다녀온 날이라야 겨우 3,000원(약 40kg)을 받습니다. 갓 시집은 새댁일 때 여물을 썰다 손가락이 절단되어 오른손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은 없습니다. 작년 4월에는 폐지를 줍다가 계단을 헛디더 굴러 넘어지는 난감한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몸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병원에 다녀올 때 드는 비용은 15,520원. 격일로 가면 더 좋겠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다녀야 할지를 고민 중입니다.

어르신은 집 근처에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인 어르신에게 1회 급식비 2,500원은 너무나 높지만 한 진입장벽입니다. 복지관과의 인연은 손가락 절단으로 인한 장애 등급이 있기에 매주 1회 장애인 복지관에서 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전부이며, 틀니가 오래되어서 김치나 고기를 씹어 먹지 못하지만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틀니 교체에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봉사를 하면 복이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파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자신보다 연장자인 89세 이웃 할머니에게 두부도 사다 드리고 팔죽도 끓여 드리는 선행을 베풀며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자 노력하십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에서는 독거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의 성장을 측정하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모금활동
  - \* 5월 11일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입구
  - \* 5월 17일 : 길상사 경내





## 중앙모임 (02-741-4696~7)

### 부처님오신날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 나눔장터

친환경 용품과 각종 재활용품들을 홍보하고 순환하는 녹색나눔장터가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에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장을 펼칩니다. 천연 수세미, 천연 화장품, 재활용 의류를 활용하여 재탄생된 리폼물건들과 회원님들이 가정에서 버리기에는 아까워, 장터로 보내주신 여러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 신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베품시장에 참여하실 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아울러 장터를 함께 진행하고 도움주실 분을 찾습니다.

### 2013년 '숲과 함께 공존하는 전통마을을 찾아서' 안내

1. 일정 : 4월 ~ 11월 첫째 토요일
2. 답사지 : 5월-경주 양동마을 6월-공주 생골마을, 마곡사, 7월-봉화 고택마을, 8월-성주 한개마을, 9월-영주 무섬마을, 10월-부여 반교마을, 11월-자원봉사자를 위한 숲기행, 충남 외암마을
3. 참가방법
  - 참가신청 : 숲기행을 다녀온 후 다음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 준비물 : 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수,

돋보기, 필기구 등 (일회용품 금지)  
 - 참가비 : 회원 25,000원 / 비회원 3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사)매품 향기롭게

### 자원봉사자 모집

1. 진인선원, 모희원 자원활동 함께 하실 분 : 진인선원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러 놀이 활동을 합니다.(매월 둘째 일요일)  
모희원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매월 첫째 일요일)
2.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함께 하실 분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 더욱 간편한 CMS 후원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 후원금액 변동, 중단 시에도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매품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 외환은행 117-13-60373-4
-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매품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 문의 : ☎ 02)741-4696~7

### 5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2일(목),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매주 목-2,9,16,23,30일/금-3,10,24,31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매품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6, 13, 20, 27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2일,19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봉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5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봉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2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매월 셋째 목요일(16일)/오후 2시/세계일화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1,8,15,22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의류재활용 리폼/세계일화실
- 숲기행/4일/경주 양동마을
- 녹색나눔장터/5월 17일(금)/길상사 트랙/오전 11시~오후 4시



### 대구모임 (053-753-8883)

#### 5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일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롬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5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 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문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웅두산 공원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 경남모임 (055-266-0170)

#### 5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

- 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하세요.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광주모임 (062-236-3129)

#### 5월 정기 활동 안내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 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 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원의 식대로

-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원을 기다립니다.(쌀, 고춧가루, 야채, 김자반, 미역, 계란, 참기름 등등)
- 범능스님과 함께하는 노래모임  
5월부터 진행될 노래모임에 동참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 노래를 좋아 하는 분  
- 회비: 매월 2만원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대전모임 (042)823-0770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 기도**

- 일시 : 5월 4일 (오후8시~10시)
- 장소 :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5월 11일 (오후9시~다음날오전4시)
- 장소 :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5월 11일(오후8시~다음날오전4시)
- 장소 : 극락전

**5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시 : 첫째주말 4일(토)~5일(일)  
넷째주말 25일(토)~26(일)
- 참가비 : 5만원 (입금순 50명)
- ※ 5월은 부처님오신날 행사 관계로 일정이 변경됩니다.

**기초경전 개강안내**

- 개강일 : 5월 22일 / 매주 수요일(12주과정)
- 수강료 : 6만원
- 강의경전 :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 강의시간 : 주간반(오후1시30분~3시30분)  
야간반(저녁7시30분~9시30분)
- 접수 및 문의 : 교무실(3672-0036)

**백중 아미타 90일 기도접수 안내**

- 입재 및 회향 : 5월 24일~8월 21일
- 장소 : 극락전

**부처님오신날 연등접수 안내**

'빈자일등(貧者一燈)' 가난한 사람이 켜는 소중한 등불 하나 즉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베푸는 값진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가족, 친지는 물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의 복된 삶을 기원하는 빈자의 마음으로 연등을 밝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 참가 안내**

- 자비의 등불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등행렬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동참바랍니다.
- 일정 : 5월 11일(토요일) 오후6시
  - 장소 : 종로거리

**자비의 주머니 접수 안내**

-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성북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주머니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올해도 변함없이 자비의 주머니를 통하여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 5월 11일까지

**일주문 단청불사 안내**

'불사(佛事)' 스스로 함은 물론 남을 시켜하거나 남에게 권하기만 하여도 불도를 이룬다. 불사는 복전으로 모든 중생에게 복의 종자를 심는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이 뜻 깊은 일주문 단청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6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6월 1일	오후 8시	극락전
관음재일	6월 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6월 8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6월 8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초하루	6월 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6월2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적묵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 주	오후 1시 20분	소강당

